

03 초등 학부모용

초등 독서, 권수를 세지 마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읽는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그래서 무엇을	4
04 점검표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국어만 고2에서 **내려갑니다** — 중3 64.5% → 고2 5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2025)
- ◆ 권수를 세는 읽기와 남는 읽기 — **모르는 낱말에서 멈추는**가가 갈림길
- ◆ 집에서 할 세 가지 · 읽기 수준을 맞추는 잣대 (한 쪽에 모르는 말 한둘)
- ◆ **어른이 하고 있는 것**까지 함께 보는 인쇄용 점검표

01 · 숫자부터

읽는 힘이 무너지는 자리

「올해 100권 읽혔어요.」

뿌듯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묻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 「그중에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몇 권인가요.」 대개 여기서 답이 멈춥니다. 권수는 세기 쉬워서 세는 것이지, 재야 할 것이라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힘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입니다.

과목	중3	고2	어떻게 움직었나
국어	64.5%	53%	내려갑니다
영어	60.5%	72.8%	올라갑니다
수학	49.6%	56.2%	올라갑니다

국어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국어는 아무도 놓지 않는 과목입니다. 수학과 영어는 중간에 놓는 학생이 많아 남은 사람만 세어져 비율이 오르는 면이 있는데, 국어는 끝까지 모두가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실제 사정에 가깝습니다.

왜 내려갈까요. **고등학교에서 읽어야 할 글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낯선 분야의 긴 글을 정해진 시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고등학교에 가서 기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초등 독서가 값을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만 권수를 세는 방식으로는 그 힘이 안 붙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표본 중3·고2 25,992명 / 539개교 (표집평가). 국어 감소의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읽은 것과 읽어 낸 것

같은 한 권을 읽어도 남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차이는 이렇습니다.

	권수를 세는 읽기	남는 읽기
목표	끝까지 넘기는 것	무슨 말인지 아는 것
모르는 말	넘어갑니다	멈춥니다
속도	일정합니다	들쭉날쭉합니다
끝난 뒤	다음 책	이야기합니다
고르는 법	권장 도서	궁금해서

「모르는 말에서 멈추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권수가 목표가 되면 모르는 낱말을 넘어가는 습관이 붙습니다. 한 쪽에 모르는 말이 서넛 있어도 줄거리는 대충 따라갑니다. 그래서 읽은 것처럼 보이고, 본인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이 중등·고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학습에 쓰이는 글은 낱말 하나가 뜻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가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뜻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긋난 줄 모릅니다.

속도가 들쭉날쭉한 것이 좋은 신호입니다

잘 읽는 아이는 일정하게 읽지 않습니다. 쉬운 데는 빨리 넘기고 어려운 데서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이 조절이 읽는 힘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어떤 책이든 비슷한 속도로 읽는다면 이해가 아니라 눈으로만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은 저희 수업·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식 통계로 뒷받침되는 구분이 아닙니다.

03 · 그래서 무엇을

세 가지만 하십시오

초등 독서에서 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셋이면 됩니다.

Q. 하나 — 읽고 나서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가장 값이 크고 가장 쉽습니다. 「무슨 얘기야?」 한 마디면 됩니다.

줄거리를 자기 말로 늘어놓을 수 있으면 읽은 것이고, 「재밌었어」로 끝나면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말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처럼 물으면 아이가 책을 피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물으셔야 합니다 — 실제로 궁금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Q. 둘 — 모르는 낱말에서 멈추게 하십시오

한 쪽에 모르는 말이 다섯을 넘으면 그 책은 아직 이릅니다. 그때는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한둘이면 좋은 자리입니다. 그 낱말을 찾아보고 넘어가면 어휘가 그렇게 늘어납니다.

어휘는 따로 외워서 늘리기 어렵습니다. 문맥 안에서 만난 낱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찾아보는 습관」이 어휘 교재보다 낫습니다.

Q. 셋 — 고르게 하십시오

스스로 고른 책을 더 잘 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장 도서 목록은 참고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목록을 채우는 읽기가 되면 앞의 둘이 다 무너집니다 —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식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고르게 읽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좋아하면 범위는 나중에 넓어지고, 싫어하면 넓은 좁든 안 읽습니다.

이 셋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대부분입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04 · 점검표

권수 말고 이것을 보십시오

인쇄해서 **학기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의 읽기에 대해

- ☐ 읽은 책을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 ☐ 모르는 낱말에서 **멈추는가** — 그냥 넘기지 않는가
- ☐ 책마다 **읽는 속도가 다른가**
- ☐ 어려운 데서 **되돌아가 읽는가**
- ☐ 스스로 **고른 책** 이 있는가
- ☐ 다 못 읽은 책을 **덮어도 되는 분위기** 인가

어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 ☐ 권수를 **세고 있지 않은가**
- ☐ 독후감을 **과제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 ☐ 「무슨 이야기야?」를 **확인이 아니라 궁금함** 으로 묻는가
- ☐ 어른도 **읽는 모습** 을 보이는가

여섯 번째를 특히 보십시오. 다 못 읽은 책을 덮을 수 있어야 다음 책을 펴니다. 「시작했으면 끝내라」가 읽기를 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독서에는 학원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앞의 셋은 **집에서 하는 일**이고, 오히려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독서를 수업으로 만들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과제가 된 읽기는 **권수를 세는 읽기**가 됩니다. 돈을 쓰실 자리가 있다면 **아이가 고른 책을 사 주는 것**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만화책만 읽는데 괜찮을까요?

단계로 보시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화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글이 있는 만화는 어휘와 맥락을 실제로 다룹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면 문제가 됩니다. 만화는 그림이 뜻을 많이 담고 있어서, 글만으로 상황을 세우는 훈련은 덜 됩니다. 중등 이후에 필요한 것은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금지하지 마시고 옆에 두십시오.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의 같은 주제를 다룬 글책을 곁에 두는 식입니다. 끊는 것보다 넓히는 것이 잘 됩니다.

Q. 읽기 수준을 어떻게 맞추나요?

한 쪽을 펴서 읽혀 보십시오.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낱말이 한 쪽에 다섯을 넘으면 아직 이릅니다. 내용을 따라가느라 힘을 다 써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쪽에 하나도 없으면 편하게 읽히기는 하지만 느끼는 것은 적습니다. 한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준은 책마다 다르게 잡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분야는 조금 어려운 것도 읽어 냅니다 — 아는 것이 많으면 모르는 낱말을 문맥으로 넘깁니다. 관심이 곧 읽기 실력인 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읽기는 몇 권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한 권에서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무슨 얘기야?」 한 마디가 백 권보다 정확한 잣대입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 결과입니다. 독서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저희 상담·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